

송구영신에배

시편1편 / 복있는 사람

1. 죄의 자리를 멀리해야 합니다.(1)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형식 중에 역설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복에 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시94:12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욥5:17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7에서도 “-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라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자는 죄의 자리를 멀리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죄도 없습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2)

죄의 자리를 멀리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 말씀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합니다.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하고 깊이 묵상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그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좇는 자리에 있나요? 복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서 살아가려합니다. 복있는 사람입니다.

3. 그 행사가 형통합니다.(3)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복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풀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됩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답답한 분들 있습니다. 안풀리는데...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론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냇가는 하나님입니다. 이들에게 살 수 있는 물이 공급됩니다. 때론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눈보라가 몰아치지만, 한 여름의 가뭄 때문에 목말라하지만 우리의 뿌리가 깊숙히 시냇가에 박혀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입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박혀 있는 한 우리들은 시절을 따라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는 뿌리는 깊숙히 내리는 작업을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로 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합니다.

2016년은 더욱더

죄의 자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 행사를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본문 6절에서 “의인들의 길” 이라 합니다. 이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복을 받아 누리는 한해가 됩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 / 213.505.4889(목사관)